

韓國傳統마을에 있어서 갈림길의 類型과 形態에 관한 研究 ^{*)}

安啓福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造景學科

A Study of Types and Forms of Branch-road in Traditional Korean Villages

Ahn, Gye-Bo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ypes and forms of branch-road in traditional korean villages. To do this, this study has selected and measured 87 branch-road cases of five traditional villages. An analysis of the case study ha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

1. Branch-roads have four formations : 3 way, 4 way, multi-way and others.
2. Branch-roads comprise 64 percent of 3 way, 18 percent of 4 way, 8 percent of multi-way and 9 percent of others, respectively.
3. Topographic conditions have mostly affected the formation of branch-roads. 3 way of branch-roads are easily found in flat village. 4 way and multi-way of branch-road are found in semi-hilly and hilly village.
4. 3 way of branch-roads have three types : T-type, Y-type, and y-type.
5. T-types are easily found in flat village, but Y-type and y-type are found in semi-hilly and hilly village.
6. Each angle of T-type is 171, 99, 90, respectively. It has turned out 8 degree is slightly deviated from the square.
7. Y-type of branch-road has an asymmetric form, comprising 145, 128, 87 degree of the angle, compared to 150, 150, 60 degree of symmetric one.

* 상기 논문은 1997년도 여산강학문화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8. Average angles of y-type that are mostly found in hilly village are 175, 113, 72. Angle differences from each spot are 62 and 41 degree. It is assumed that 39 degree is a slope of least effort to walk.
9. 4 way of branch-roads have not only "+" type but various types of K, Y and Y, Y and y, T and y and a foot of bird.
10. It is assumed that multi-way of branch-roads, mostly found on the middle and bottom of the hilly slope, has naturally formed to connect up and down, left and right.

Key Words : Traditional village, Branch-road, Type, Form

I. 序論

길이란 人間の 行態가 낳은 산물이며 한 空間에서 다른 한 空間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空間을 연속적으로 체험하기에 길은 의미있는 장소로 기억되고 인식되어져 왔다. 韓國에는 韓國傳統의 분위기가 살아있는 독특한 길이었다. 이를테면 안길, 갈림길, 셋길, 골목길, 고갯길, 꼬부랑길과 같은 樣式言語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특징있는 분위기와 형태를 가졌던 길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산업화, 경제개발지향 정책, 새마을 사업 등으로 인해 서구적인 개념의 도로가 도시와 농촌에 도입되면서 전통의 길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최근 전통을 살리기 위하여 새로 조성된 전통마을이나 야외박물관, 민속촌 등은 그 분위기가 전통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 原因 가운데 하나는 길이 傳統적인 길의 形態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992년에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필동 군부대 이전지역에 전통문화동네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에서 중요한 점을 간과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한옥만 세운다고 傳統空間이 再創造되는 것은 아니다. 再創造란 철저한 모방과 완전한 모방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거슬리는 것은 마을길의 형태였다. 이 계획도상에 나타나는 길은 운형자에 의해 그려진 것이지 결코 韓國傳統의 길은 아니었다(안계복, 1995).

이러한 現狀이 나타나는 理由는 韓國傳統空間에 대한 基本的인 研究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전통을 재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앞선 연구 김용미(1985)는 충북 영동군 달밭 외 4

개 마을을 대상으로 길의 유형이 나뭇가지꼴, 활꼴, 그물꼴의 세 가지유형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계획의 초기 단계에 매우 유용한 개념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설세계에서는 스케일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

韓國의 전통적인 길은 단순하지가 않고 똑같은 모양의 갈림길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갈림길을 유형화시키고 형태적인 특징을 밝혀 전통조경설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研究의 목적이다.

II. 研究方法

本 研究는 代表的인 전통마을 가운데 原型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朝鮮時代에 形成된 곳을 대상으로 갈림길의 類型을 分類하고 形態上的 특징을 밝히는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존 상태가 양호할 뿐만아니라 평지, 준구릉지, 구릉지, 읍성 등 자연 및 사회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상호 비교 연구가 용이하리라고 판단되는 慶尙北道 安東郡 河回마을, 慶尙北道 月城郡 良洞마을, 全羅南道 승주군 낙안 읍성, 忠淸南道 아산군 외암리마을, 제주도 남제주군 성읍마을, 5개소를 선정하였다. 본 研究對象에 대한 조사는 1997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다.

分析方法은 다음과 같은 形態論의 分析方法을 사용하였다. 우선 각 대상지별로 문화재관리국이 소장한 1/600~1/1200 도면을 바탕으로 현지 대조작업을 하여 변형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갈림길을 중심으로 1/100~1/200 축척으로 평면측량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전통마을의 상당부분이 차량의 통행을 위

해 길이 확장되거나 담장의 선이 변형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측된 자료를 도면화시킨 다음 이를 스캐닝하여 그림파일로 만든 다음 Photoshop 5.0으로 그림파일을 재편집한 후 그림파일을 4~5cm 크기로 프린팅하여 유형분류를 위한 일차적인 자료로 삼았다.

일차적인 유형분류 작업은 단순시각에 의한 방법으로 4~5cm크기로 프린팅된 것을 비슷한 모양끼리 모으는 작업을 전문가 1인과 비전문가 1인이 공동으로 토론을 하며 유형분류 작업을 하였다. 이차적인 유형분류작업은 ThumbsPlus 3.0 S/W를 사용하여 스캐닝한 그림파일을 1°씩 회전시키면서 적합한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유형분류 작업은 주로 시각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형분류의 판단 기준과 자료 검증을 위해 分枝각도를 측정하였다. 分枝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갈림길의 分枝가 시작되는 지점과 도면상 길이 끝나는 지점의 노퍽 중앙점을 서로 이어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차 유형분류 작업은 分枝각도의 유형별 통계값을 바탕으로 1, 2차 유형분류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III. 分析 및 考察

1. 갈림길의 형태

표 1은 대상지 마을의 갈림길에 대해 실측한 87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갈림길의 종류는 길이 갈라진 수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기초하여 세, 네, 여러갈래길로 나누었다. 전통마을은 지형의 조건에 따라서 평지, 약간의 경사가 있는 외암리를 준구릉지(심해자, 1990:緩斜面)로, 경사가 있는 양동마을을 구릉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전통마을을 설계할 때 지형의 특징에 따라 갈림길을 적절히 설계하여 넣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평지인 경우 읍성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마을을 비교하기 위해 낙안, 성읍, 하회를 조사하였으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세 마을은 합쳐서 비교하고자 한다.

표 1. 전통마을 갈림길의 경향 분석(%)

	평 지			준구릉지	구릉지	계
	낙안	성읍	하회	외암리	양동	
세갈래길	18	9	14	9	6	56(64)
네갈래길	1	3	2	5	5	16(18)
여러갈래길	1	1	1	0	4	7(8)
기타 ^{*)}	2	2	2	1	1	8(9)
계	22	15	19	15	16	87(100)

*) 기타형은 주로 바깥마당과 불규칙하게 연결된 갈림길이다.

전 대상지를 두고 볼 때 세갈래길이 6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네갈래길이 18%를 차지하며, 여러갈래길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마을의 갈림길의 형태는 세갈래길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읍과 외암리는 갈림길의 유형별 빈도 9의 숫자는 같지만, 성읍은 직교형이 많이 포함된 9이고 외암리는 새총형이 많이 포함된 9이다.

표 2. 지형의 특성에 따른 갈림길의 형태(%)

	평 지	준구릉지	구릉지
세갈래길	41 (73)	9 (60)	6 (38)
네갈래길	6 (11)	5 (33)	5 (31)
여러갈래길	3 (5)	0 (0)	4 (25)
기 타	6 (11)	1 (7)	1 (6)
계	56 (100)	15 (100)	16 (100)

*) 평지 : 낙안, 성읍, 하회마을, 준구릉지 : 외암리, 구릉지 : 양동

표 2는 지형의 조건에 따라서 갈래길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지형의 조건을 평지, 준구릉지, 구릉지로 나누어 볼 때 평지마을에서는 세갈래길의 구성비가 73%로 아주 높은 반면에 준구릉지(60%), 구릉지(38%)로 갈수록 구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반면에 네갈래길과 여러갈래길은 평지마을에 비해 구릉지에서 그 구성비가 높다.

2. 세갈래길의 유형과 형태

표 1의 결과는 전통마을에서 가장 일반적인 갈림길의 형태는 세갈래길이었다. 세갈래길은 시각적인 유형 분류 작업에 의해 두 길이 만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직교형, 새총형, 지게형이라는 세 가지의 세부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직교형은 T자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두 길이 약 90°로 만나는 것을 말하며, 새총형은 Y자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지게형은 소문자 y자와 비슷하게 직선적인 두 길이 예각으로 만나는 유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통마을에 있어서 길의 유형을 "T, Y, y"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용어가 가져올 수 있는 개념상의 혼돈을 막기 위해 -다시 말해 "T, Y, y"란 글자의 형태와 한국전통의 길의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직교형, 새총형, 지게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3. 세갈래의 세부유형별 특징 분석표(%)

대상지 유형	평 지				준구릉지	구릉지	계
	낙안	성읍	하회	소계	외암리	양동	
직교형	11	5	8	25(61)	2(22)	1(17)	28(50)
새총형	3	3	4	10(24)	5(56)	2(33)	17(30)
지게형	4	1	2	6(15)	2(22)	3(50)	11(20)
계	18	9	14	41(100)	9(100)	6(100)	56(100)

표 3은 세갈래길의 세부유형별로 지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대상지 56개소 가운데 직교형이 절반인 50%, 새총형이 30%, 지게형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지마을에서는 세갈래길 가운데 직교형의 구성비가 61%로 높게 나타났다. 외암리와 같은 준구릉지 마을에서는 세갈래길 가운데 새총형의 출현빈도(5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마을과 같은 구릉지 마을에서는 세갈래길 가운데 지게형이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직교형

조사대상지 가운데 직교형으로 분류된 갈림길의 형

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도면의 분枝각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것이 표 4로서 측정된 각을 크기 순서대로 A1, A2, A3으로 나타낸 것이다.

직교형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그림 1의 상부에 위치한 길이 직선이 아니라 약간 위로 휘는 것이다. 직교형에서 가장 큰 각인 A1의 통계치를 보면 151°에서 185° 사이에 분포하는데 평균값은 171°이다. <표-4>에서 조사대상 28개소 가운데 21개소가 180°미만인 경우로 75%를 차지하고 있어 길이 약 10°가량 위로 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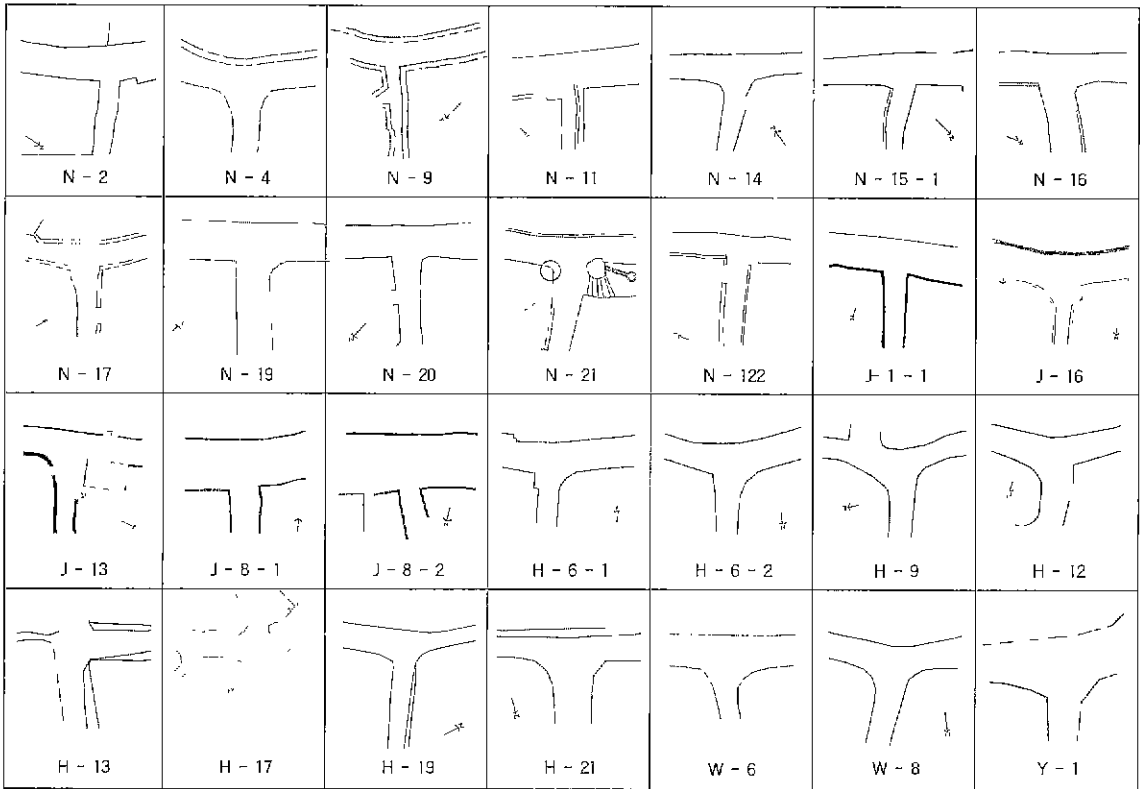
표 4. 직교형 세갈래길의 각도 분석표

대상지 각	대상지			대상지 각	대상지		
	A1	A2	A3		A1	A2	A3
N-2	172	98	90	J-8-2	185	96	79
N-4	162	103	95	H-6-1	165	101	94
N-9	161	105	94	H-6-2	151	108	101
N-11	179	94	87	H-9	153	110	97
N-14	175	103	82	H-12	155	112	93
N-15-1	180	96	84	H-13	177	99	84
N-16	180	97	83	H-17	184	92	84
N-17	166	98	96	H-19	160	106	94
N-19	178	92	90	H-21	176	93	91
N-20	182	91	87	W-6	172	103	85
N-21	177	97	86	W-8	159	108	93
N-22	182	90	88	Y-1	167	104	89
J-1-1	183	95	82	MAX	185	112	101
J-6	159	103	98	MIN	151	90	79
J-13	179	93	88	MED	174	98	90
J-8-1	169	93	98	평균	171	99	90

두 번째 특징은 직교형이라고 하지만 180-90-90°인 길은 없다. 직교형 28개소 가운데 180-90-90°의 ±5° 범위 안에서 직교하는 것은 N-11, N-19, N-20, N-22, J-13, H-21로 6개소에 21%이다. 직교형에서 두 번째로 큰 각인 A2와 가장 작은 각인 A3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99°와 90°로, 직교에서 한쪽으로 약 10° 정도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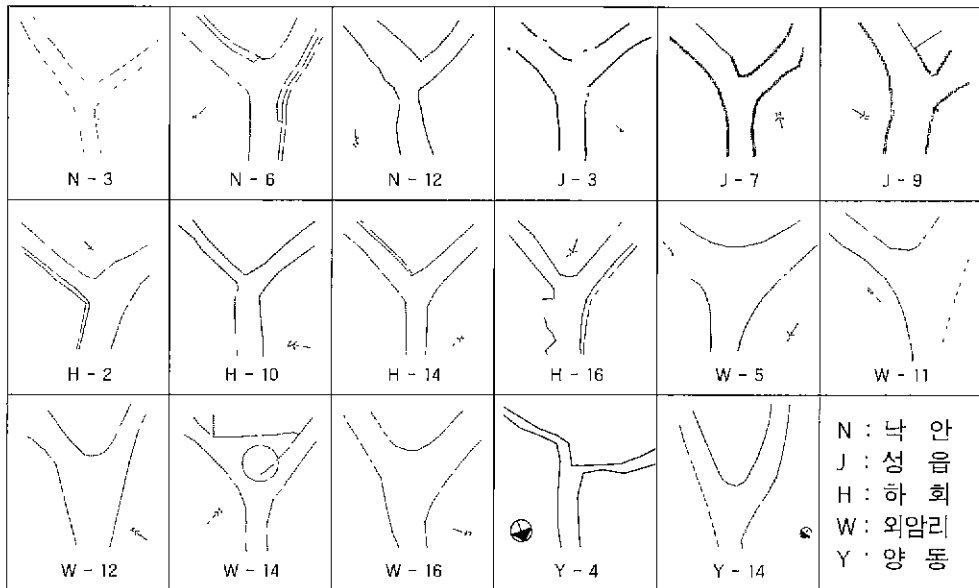
세 번째 특징은 각각부분의 모퉁이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마을별 직교형 갈림길의 형태



N : 낙안, J : 성읍, H : 하회, W : 외암리, Y : 양동

그림 2. 마을별 새총형 갈림길의 형태



한쪽이 직각인 형태인데 비해 다른 한 모퉁이는 둥그스름한 모퉁이 형상을 하고있는 것도 있다.

직교형 갈림길의 典型을 찾기 위해 중간값과 평균값을 고려하여 이 값에 가장 근접한 것을 표 4에서 찾아보면 낙안읍성의 N-2이다. N-2는 평균값과 0~1°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가운데 하회마을의 H-6-2는 새총형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새총형으로 분류하기 쉽지만 A2-A3의 값이 7°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교형에 분류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새총형

조사대상지 가운데 새총형으로 분류된 갈림길의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난 특징은 두 길이 만나서 하나의 길이 되든지 혹은 하나의 길이 나누어져 두 길로 이루어져서 예각을 형성하는 유형이다. 새총형이 형성된 배경은 지형, 토지소유권, 인간 행태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계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를 보면 일견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외암리의 W-5(135-122-103°)와 같이 세 각이 엇비슷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양동마을의 Y-14(169-137-54°)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좁은 예각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새총형 세갈래길의 제일 큰 각인 A1은 133°에서 169° 사이에 분포하는데 평균값은 145° 이고, A2는 115°에서 138° 사이에 분포하고 평균값은 128°며, 제일 작은 각인 A3은 54°에서 105° 사이에 분포하고 평균값은 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의 차이 A1-A2, A2-A3은 17°, 41°이다.

표 5. 새총형 세갈래길의 각도 분석표

대상지 \ 각	A1	A2	A3	대상지 \ 각	A1	A2	A3
N-3	152	118	90	W-11	152	130	78
N-6	148	120	92	W-12	157	137	66
N-12	147	124	89	W-14	142	137	81
J-3	134	126	100	W-16	158	126	76
J-7	138	130	92	Y-4	133	122	105
J-9	141	129	90	Y-14	169	137	54
H-2	144	115	101				
H-10	136	120	94	MAX	169	138	105
H-14	136	135	89	MIN	133	115	54
H-16	144	138	78	MED	144	129	90
W-5	135	122	103	평균	145	128	87

새총형은 "Y"자와 같이 150-150-60°를 이루는 형태가 아니라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146-127-87°이다. 이 형태는 대칭형이 아니라 큰 각 두 개 중 어느 한쪽이 20° 가량 더 큰 형태로 되어 있다. 실제 표 5에서 조사대상지 18개소 가운데 A1-A2가 ±5° 이하인 것은 1개소, H-14 뿐이다. 예각은 "Y"자 보다 약 30° 가량 더 넓은 87°를 이루고 있다.

새총형의 典型을 찾기 위해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것을 표 5에서 찾아보면 낙안읍성의 N-12로 平均值와 1~4° 차이가 있다.

3) 지계형

지계형의 특징은 표 6을 통해 나타난다. 지계형의 제일 큰 각인 A1은 165°에서 188°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값은 175° 이고, A2는 105°에서 129° 사이에 분포하고 평균값은 113°이며, A3은 52°에서 87° 사이에 분포하는데 평균값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의 차이 A1-A2, A2-A3은 62°, 41°이다.

지계형으로 분류된 갈림길의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나타난 지계형 갈림길의 특징은 직선에 가까운 길이 또 다른 길과 예각으로 만나고 있다.

표 6. 지계형 세갈래길의 각도 분석표

대상지 \ 각	A1	A2	A3	대상지 \ 각	A1	A2	A3
N-8	167	108	85	Y-3	179	129	52
N-13	176	113	71	Y-10	171	109	80
N-18	165	112	83	Y-12	170	118	72
J-5	178	112	70				
H-11	185	114	61	MAX	188	129	87
H-15	188	108	64	MIN	165	105	52
W-19	180	110	70	MED	176	111	71
W-22	168	105	87	평균	175	113	72

그러나 그림 3을 시각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낙안읍성의 N-8은 직교형, 양동마을의 Y-12는 새총형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유형분류에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표가 표 7이다.

표 7. 세갈래길의 유형별 비교표

		A1	A2	A3
직교형	평균	171	99	90
	A1-A2	72		
	A2-A3		9	
새총형	평균	145	128	87
	A1-A2	17		
	A2-A3		41	
지계형	평균	175	113	72
	A1-A2	62		
	A2-A3		41	

*)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

표 7을 보면 직교형과 지계형의 차이점이 나타난다. 직교형과 지계형의 같은 점은 A1-A2의 값이 72°와 62°로 값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직교형의 A2-A3은 9° 밖에 안되지만, 지계형의 A2-A3은 41°로 직교형보다 차이가 크다.

따라서 그림 3의 N-8은 A2-A3의 값이 23°이기 때문에 직교형의 10° 보다는 훨씬 크므로 지계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계형과 새총형이 같은 점은 A2-A3이 41°로 같지만, 다른 점은 지계형의 A1-A2는 62°인 반면에 새총형은 17°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림 3

그림 3. 마을별 지계형 갈림길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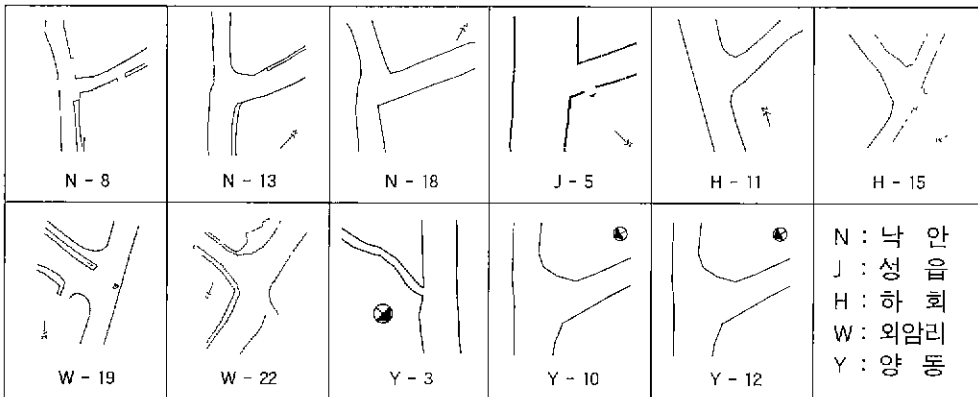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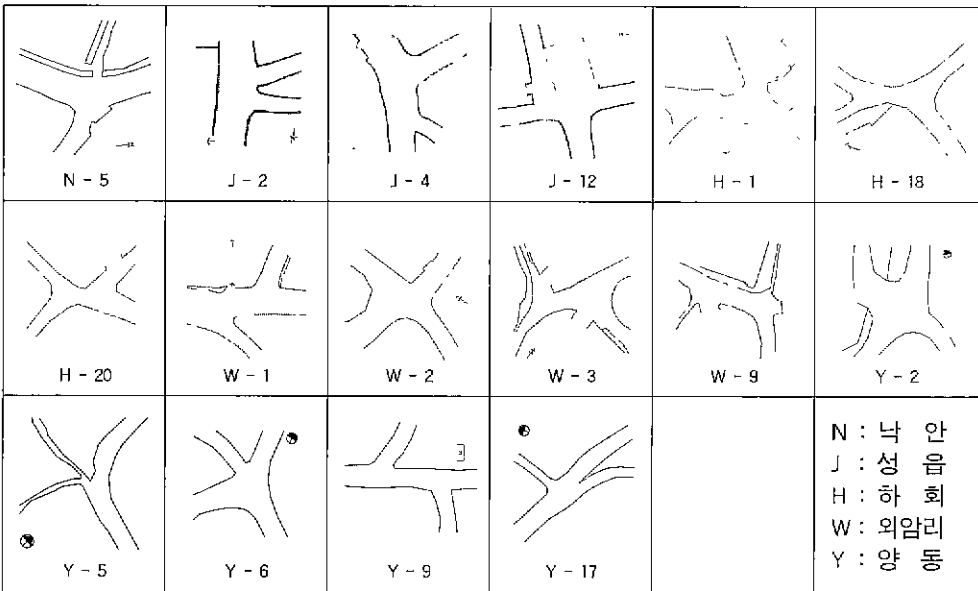


그림 4. 마을별 네갈래길의 형태



의 Y-12는 A1-A2값이 52° 이기 때문에 세총형보다는 지계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세갈래길 가운데 지계형이 구릉지마을에서 구성비가 높은 이유는 길이 갈라져 경사지를 올라 갈 때에는 90° 방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약 40°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네갈래길의 유형과 형태

조사대상지 5개 마을에서 네갈래길로 실측된 자료는 16개소이었으며 형태적인 특징은 그림 4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한국전통마을에 있어서 네갈래길은 우선 "十"형이 적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측대상 16개소 가운데 외암리의 W-2가 십자형이지만 그것도 네 길이 하나의 중심점에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중심점에서 갈라지고 있다. 두 중심점을 기준으로 볼 때 83°와 97°, 85°와 113°의 각도로 갈라져 나가고 있다.

성음의 J-2와 J-4는 "ㄨ"자 비슷한 꼴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회의 H-18과 H-20은 세총형이 마주 붙어서 되어있는 형태도 있다. 또한 외암리의 W-1은 한 길을 중심으로 지계형인 두 길이 반대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도 있으며, 양동마을의 Y-9는 한 길을 중심으로 직교형과 지계형인 길이 뻗어나 있는 형태도 있다.

그밖에 양동마을의 Y-5, Y-6, Y-17은 鳥類의 발이 변형된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4. 여러갈래길의 유형과 형태

여러갈래길로 실측된 자료는 7개소로 형태적인 특징은 그림 5와 같다. 여러갈래길은 5개 이상의 길이 나 있는 경우를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양동마을의 Y-7과 Y-11은 여섯갈래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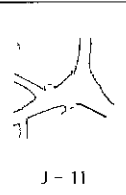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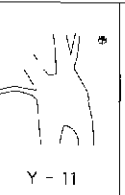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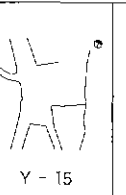








입지적인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구릉지 마을인 양동마을에서 많이 나타나며, 畝城인 경우 城門 안쪽에 여러갈래길이 나타난다. N-1은 낙안 읍성의 남문 안쪽을 실측한 길이고, J-11은 마을 공동마당 한쪽에 정자나무가 있고 공동마당의 외곽모서리 부분에 길이 1~2개씩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동마을의 Y-7, Y-11, Y-13, Y-15는 구릉지의 산정부분이나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중턱부나 구릉지 기슭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갈래길을 중심으로 위, 아래, 좌, 우측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판단된다.

기타형 가운데는 N-15-2, J-10, J-14, H-22와 같이 마당이나 성문 안쪽 공간에 길이 서너개 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여러갈래길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길의 숫자가 다섯개 이상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기타형 가운데에는 N-10과 같이 많이 휘어진 길에 틀어진 "ㄨ"자형의 갈림길이 난 것도 있고, H-5와 같이 세총형의 한쪽이 잠자기 굽은 것, W-10과 같이 세총형의 한쪽 부분이 마당으로 넓어진 것, Y-16과 같이 세총형의 한쪽에 마을공동 우물이 있는 것도 있다.

그림 5. 여러갈래길과 기타형의 형태

여 러 갈 래 길	 N - 1	 J - 11	 H - 4	 Y - 7	 Y - 11	 Y - 13	 Y - 15	
기 타	 N - 10	 N - 15 - 2	 J - 10	 J - 14	 H - 5	 H - 22	 W - 10	 Y - 16

IV. 結論

본 연구는 한국전통마을에 있어서 갈림길의 유형과 형태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5곳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87개소의 갈림길을 실측하여 얻은 자료를 형태론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1. 한국의 전통마을에 있어서 갈림길의 유형은 길이 갈라진 숫자에 의해 세갈래길, 네갈래길, 여러갈래길로 나눌 수 있다.
2. 갈림길의 가운데 세갈래길은 64%, 네갈래길은 18%, 여러갈래길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지형의 조건에 따라서 갈래길의 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평지마을에서는 세갈래 길이 73%인 반면에 구릉지로 갈수록 구성비(38%)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반면에 네갈래길과 여러갈래길은 준구릉지, 구릉지로 갈수록 구성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세갈래길의 유형은 다시 직교형, 새총형, 지계형으로 세분된다.
5. 평지마을에서는 세갈래길의 61%가 직교형이며, 준구릉지에서는 세갈래길의 56%가 새총형이고, 구릉지 마을에서는 세갈래길의 50%가 지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직교형의 세각의 평균치는 171-99-90°로 약 10° 정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새총형은 "Y"자와 같은 150-150-60°가 아니라 145-128-87°인 비대칭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지계형은 구릉지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평균각은 175-113-72°로 나타났다. 각각의 차이는 62°와 41°로 40°는 인간이 경사지를 힘을 적게 들고 오를 수 있는 각도로 판단된다.
9. 네갈래길은 우선 "+"형이 적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자, 새총형과 새총형, 새총형과 지계형, 직교형과 지계형, 鳥類의 발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다.
10. 여러갈래길은 대부분 구릉지의 중턱부나 구릉지 기슭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갈래길을 중심으로 위, 아래, 좌, 우측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판단된다.

인용문헌

1. 경상북도(1979) 양동마을 조사보고서
2. 김용미(1985) 한국농촌마을의 건축적 질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심혜자(1990) 촌락의 입지 및 공간구성의 풍수국면적 특징: 충남 아산군 송악면외암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안계복(1995) 장인정신을 되살리는 평범위헌 의식의 대전환 요구. 환경과 조경89: 91-96
5. 오세은, 안계복(1998) 한국전통마을의 갈림길의 형태에 관한 연구-곡률 반경과 중심각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1998년도 한국정원학회 학술논문발표회 초록집. pp 16-18.